

논산 부창동 성당

주소 : 충남 논산시 논산시 시민로 405(옛주소:부창동 1번지) 041-733-5321

찾아가는 길(서울에서 출발)

1시간 56분 KTX 1시간 6분 요금 약 25,400원
서울역 KTX
공주역
2시간 5분 KTX 1시간 36분 요금 약 28,100원
용산역 KTX
논산역
2시간 58분 고속버스 2시간 10분 요금 약 11,100원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고속
논산고속버스터미널
3시간 7분 시외버스 2시간 20분 요금 약 14,900원
동서울종합터미널 시외
논산버스터미널



설립자의 논산 사목 역사

1949.05.02-1962.02. [제8대 주임]

- 1921. 06. 논산 본당 설립 / 후보: 루르드의 성모
- 1923. 옛 성당 신축
- 1947. 02. 15.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설립
- 1948. 01. 03. 양로원(현 썬플요양원) 개원
- 1957. 03. 03. 대전교구 첫 레지오 마리아 시작
- 1957. 12. 한센인 정착촌 양생원(성광원) 개원
- 1958. 08. 연무 본당 분가
- 1959. 03. 12. 대전교구 최초 꾸리아(루르드의 성모) 설립
- 1961. 10. 11. 성당 봉헌식
- 1961. 12. 30. 썬플 여자중고등학교 설립

논산 성당(현재 부창동 성당)은 설립자 신부님께서 1949년부터 1962년까지 사목활동을 하시던 곳이다. 신부님께서서는 1949년 10월에 “어린이를 위한 미사경본”을 번역하여 인쇄, 보급하였고, 이후 시약소 설치, 논산 대건고등학교와 해성여자중고등학교(현 썬플여자고등학교) 설립 인가, 썬플양로원 설립, 대건 유치원 개원, 양생원(현재 성광원) 등을 설립하셨으며, 대전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 하기도 하셨다. 이곳은 설립자가 선교사제로서 가장 열정을 쏟으며 헌신하셨던 사목지이다.

논산 부창동의 의미

- 전쟁을 거치며 지역민들의 삶과 본당 재건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은 사목지

- 본당설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서 편찬과 심포지엄 이후에도 신앙선조들의 자취를 찾아보고자 하는 활기와 열정이 가득한 본당-성재덕 신부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가득하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

미사 시간

주일 06:00 10:00(교중미사) 19:00(중고등부,청년미사)

월 06:00

화 19:00

수 10:00 19:00

목 06:00 10:00

금 10:00 19:00

토 15:00(어린이미사) 19:00(특전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



(설립자 재직 당시 성당)



(현재 성당)



(설립자 재직 당시 성당 내부)



(현재 성당 내부)



(설립자 재직 당시 성모동굴)



독서 자료

서한 1956.12.19. 논산에서

...우리 교우들은 착하고 단순하다. 가난하지만 사랑스런 사람들이다. 지난 번에(요즘은 마지막 수확철인데)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 오셨는데, 팔이 한 쪽밖에 없는 그 할머니는 당신네 집에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쌀 1부아소를 가져오셨다. 자녀가 다섯인 또 한 과부는 내게 1,500환(600프랑)을 갖다 주고 생활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돈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울기만 했다.... 어렸을 때 쓰러졌다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난한 식구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 날 저녁으로 곧장 묻으려 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인 과부 며느리가 정성껏 모셔왔던 그 할머니를 위해서 본당에서 어떤 이들은 미사 봉헌금을 내주고, 어떤 이들은 수의 값을 내주고 또 어떤 이들은 시신을 장지까지 실어다 주었다. 봐라, 세상 어디에나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있는 법이구나.

서한 1958.01.03. 논산에서

내 장사는 잘 되어가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 8년 전만 해도 교우가 겨우 1,500명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3,500명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하느님의 은총과 네 기도 효험으로 성인 영세자 수가 323명이며 어린이 영세자와 임종 대세자까지 합하면 모두 600명이 넘을 것이다! 봤지, 내가 괜히 선교지로 왔겠니? 하늘에 계신 아빠, 엄마께서 나를 많이 도와주시나 보다. 일이 이렇게 확장되니까 더붙어서 짓고 또 지어야 하는 엄청난 부수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는구나. 작년에는 작은 성당 두 개를 짓고 앞으로 본당을 지을 부지를 사놓았다. 앞으로 내 본당을 분할하게 되면 성전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그 이상은 할 수가 없겠다), 또 학교 건물의 한 측면도 지어야 할 텐데.... 하느님 맙소사, 그 일을 어떻게 다 해낼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되겠지. ... 내 나라는 아직 문명화되기에는 요원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다른 나라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든 간에 나는 여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한다. ...

다행히 공소 순방을 다 치렀고 그 유명한 아시아 독감에도 걸리지 않았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지난 20년 동안 공산당을 피해 다니던 2, 3일을 제외하고는 미사를 한 번도 결한 적이 없다. 20년이 넘도록 미열 한 번 있는 적이 없고 작은 상처 한 번 난 적이 없으며 가끔 치통과 좌골 신경통을 좀 앓은 것이 고작이다! 봤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니 너는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나도 내 건강에 놀랄 정도이니, 좋으신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내게 그런 건강을 주셨나보다.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2년 만에 심각하게 아프고 수술도 받았으며 그때 나는 내 병명에 결핵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960년 7월 7일에 내 사제 수품 은경축을 맞이할 것이다.

서한 1959.01.09. 논산에서

벌써 195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여러분에게 복되고 거룩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저를 위해, 제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그토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본당을 맡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하고 싶은 것을 항상 할 수는 없게 됩니다. 특히 성탄절과 같이 일이 많은 축일 끝에는 휴식도 좀 취해야 하고 교우들의 영적 노트도 정리해야 하고 주교관에 보고서도 올려야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해서 작은 병도 앓지 않으니 단 며칠도 쉬지를 못합니다! 저는 늘 저의 운명에 만족해하며 착한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와 공로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저의 허다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저의 일을 축복해 주시나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과연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루르드 성모님은 제 본당의 주보성인이십니다) 701명이나 되는 영세자를 수확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성인이 395명, 교우 자녀 166명, 임종 대세자 140명) 저로서는 이러한 숫자에 달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천국에 오른다면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재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 저는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르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웠고 얼마나 많이 글씨를 썼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산과 평원을 삼복더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로 달렸는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이렇게 행복하니 여러분과 함께 저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 폭탄이며 인공 위성 따위들에 마음을 쏟고 그런 것에 최면이 걸린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 말할 시간도 없으며 차라리 그것이 평화를 간직하는데 훨씬 나을 것이며 영혼들을 구하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참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이곳에도 불편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 난방, 전기, 교통수단, 물품 구입, 이해 받지 못하는 것, 우리 교우들의 극빈함,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 이런 단점들이 있으나 그것들을 뛰어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야겠지요.

이제는 마을마다 10여 명의 외교인들의 서명이 담긴 요청 편지를 통해 저를 부릅니다!!! 예전엔 한 명씩 찾아왔었는데 말입니다. 아, 골짜기에 버려진 이 마을들을 찾아가 불심지를 밝힌 저녁, 방 안 가득히 채운(방문까지 열어 놓아야 할 정도로 아래에서 위쪽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들과 눈들만 보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은 없으니 정말이지 저는 제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저는 두 달 전에 제게 방문을 요청한 산 마을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신입교우들은 벌써 서로 분담하여 초가지붕의 집 한 채를 매입하여 성당으로 꾸며놓고 저를 위해 작은 방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날 밤 저는 거기서 1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들 중 몇몇이 어디에서 영세를 받고 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는 기쁨 속에서 그들은 교회의 규칙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함께 기도문을 암송하고(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당에는 올 수가 없기에), 교리를 공부하고 여가 시간도 거룩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외교인들은 그들을 비웃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먹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지요! 그들은 비난하기 전에 잠자코 첫 수확이나 기다려 보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수확은 풍작이었고 주일에도 일했던 사람들의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비웃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지만 그래도 너그러운 처사가 아니었지요!!

저의 현재 성당은 현재 교우 수에 비해 너무 작아서 많은 교우들이 성당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식구를 생각해서 이 은총의 시기를 이용하여 저는 어떻게 하든 더 넓게 새 성당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필요한 비용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언제나 일이 성사될지 모르겠기에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된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루르드에 가시는 복을 지니신 분들께서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생기는 대로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지요! 황폐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에 있으니 이 나라에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프랑스에서 멀리 있다 보니 프랑스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편지를 후원자가 되어 줄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랑스인이 아닌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프랑스인들은(먼저 들어왔으면서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아프리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버림받은 느낌이고 또 저희는 가끔 물질적으로도 밑바닥 상태에 놓이게 되어 남몰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미래는 무엇보다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 인구의 거의 반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리며 예수 마리아 성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경의와 초성적 애정을 표합니다. 피에르, 생제

회고 - 논산 신자 김석배, 박귀우, 김만석, 나종관

구 사제관 뒤에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었다. 이곳을 수리하여 노인 한두 분을 모시고 편안히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사를 제공하며 보살펴 주셨다. 바오로회 수녀님들이 와서 이 일을 맡아 해 주었다. 노인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자 현 썬볼 학교 강당에다 양로원을 짓고 수녀들로 하여금 봉사케 했다. 이 양로원을 지을 때 좋은 사업을 하시니 원조기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자 성 신부님께서서는 “당신들이 돈을 주고는 후일에 간섭하면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냥 주었다.

이때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가 났고 현 위치의 양로원이 건립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양로원을 뒤에 바오로 회에 맡기신 것이다.

레지오 마리아는 1958년 경에 시작되었다. 당시 대전교구에는 레지오가 없었으므로 성 신부님께서 광주 세나투스에 직접 연락하셨다. 광주에서 지도자를 파견하여 논산성당에서 천지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광주 세나투스는 레지오 마리아 본부였다. 그 때부터 단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강경에도 브레시디움이 생기는 등 각 본당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논산, 강경, 나바위 3개 본당의 브레시디움을 합쳐 루르드의 성모 꾸리아를 만들었다. 음성 나환자촌은 성 신부님의 주선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환자들이 자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대건 중학교는 조인원 신부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셨다. 이 분이 떠나시고 대건학교가 본당 소속의 학교로 되자 성 신부님께 운영권이 맡겨졌다. 이 때 성 신부님은 교장 업무와 여러 가지 운영난으로 애를 많이 쓰셨고 고통도 많이 받으셨다. 본당 사업에 있어 청년회가 본당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셨다. 청년회가 모든 일처리와 대축일 준비를 맡았다.

성 신부님께서서는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고 가난하게 사셨으며 부지런하셨다. 어린이부터 청년, 부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을 위해 온통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가난하게 사셨고 무척 고생하셨다.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귀여워하셨다. 사제관에서 늘 아이들과 같이 놀아 주셨다. 가끔 그곳에 가면 실내가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없었다. 한 번은 떠들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더니 성 신부님께서 “어린이들이 내 손님이지 당신 손님이 아닌데 왜 야단을 칩니까?” 하고 도리어 나를 꾸짖으셨다.

신부님에 대해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매주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목세영 신부님께 가서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고 고해성사를 보셨던 일이다. 포장도 안 된 10Km거리를 자전거로 달려가셔서 즐겁게 식사하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셨다.

성 신부님은 매년 한 번씩 성체거동 행사를 하셨다. 온갖 정성을 쏟으셔서 가는 길가에 꽃가루를 깔고 성당 주변 외곽도로를 한 바퀴 돌아오셨다. 공소 방문을 성실히 하셨다. 신도내는 무당, 점장이, 사이비 종교들 40여 종파가 계룡산 밑에 밀집해 있는 곳인데도 성 신부님은 이곳에 새 신자들을 영세시켜 공소를 개설하셨다. 연무대 공소를 새로 본당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셨다.

어린이 미사를 너무도 재미있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떠들 새도 없었다. 성 신부님 때문에 바로 어린이들의 천국이였다. 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며칠 동안은 눈물을 흘리셨다. 성 신부님은 논산 신자들 가정의 손가락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신자 사정에 밝으셨다. 신자

들과 항상 가까이 하였고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외우시면 꼭 기억해 주셨다.

이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성인 신부님으로 불리었다. 성당 안이나 밖에서 팔짱을 끼시고 묵주기도를 드리며 왔다갔다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주일마다 성체강복이 있었다. 이때(1959, 60, 61년경)는 양로원, 썬볼학교, 성광원이 있었다. 당시 양로원에는 할머니 몇 분이 계셨다. 양력 설 때 조그만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신부님께 세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으셨다. 세배 값으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서 기뻐하셨다.

한 마디로 성 신부님은 성직자다우셨고 성인이셨다. 신부님은 항상 아이들을 귀여워하셨다. 한문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강론 때 문자도 곧잘 쓰셨다. 미리 말씀하실 내용을 영문타자로 찍어 강론 하였던 기억이 난다.

성 신부님은 사랑이 너무도 많은 분이셨다. 지금의 성당 앞에 있는 성모상은 일본에 계신 신부님의 동생 수녀님이 기증하신 것이다.

신부님은 신자들의 본명을 기억하셨다가 꼭 본명으로 불러 주시곤 하셨다. 성 신부님께서 레지오 마리아를 대전 교구에 맨 먼저 도입하셔서 전파하셨다. 홍산 본당에 계실 때는 논산성당에 부탁하시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였다.

운동에 무척 취미가 있으셔서 청년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 다니시며 운동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신부님이 정릉 계실 때 금경축을 맞으셔서 찾아뵈었다. 휠체어를 타신 신부님께서서는 우리 각각에게 그 동안도 기억하고 계셨던 본명을 하나하나 불러 주셨다.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셨다. 성사도 자세하게 보아주셨다. 논산이 원조 구역인지라 성 신부님께서서는 끝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 성당 지을 때도 신자들에게 기금을 걷지 않으셨고 다만 경향잡지(1년 대금 300원)를 구독할 경우 교무금을 면제해 주셨다.

신부님은 자전거를 타고 공소 방문을 다니셨는데 30리나 되는 길도 기꺼이 달려 오셨다. 굉장하신 분이셨다. 현 부창동 성당(옛날 논산)옆에 루르드 동굴도 만드셨다. 이곳에서 성모성월 행사를 하곤 했다. 단추가 달아난 다 떨어진 수단을 입으시고 묵주기도를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우리와 만나면 언제나 말을 건네시고 우리 이야기나 청을 잘 받아 주시던 기억이 난다. 어린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셔서 어린이들이 성당에서 팔짱을 끼어도 괜찮다고 하시어 아이들도 팔짱을 끼고 다니고 하였다.